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됩시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25-37절

메시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참 이웃의 삶으로 부르신다.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일어서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즉 세상 나라의 권세를 파하며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그 어느 때보다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는 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 속에 아마도 그의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방의 정치적, 문화적 침투에 맞서 유대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그들은 율법과 조상의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 조국의 멸망을 막고자 했고 나아가 민족의 중흥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비록 그가 율법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전통에 끊임없는 도전을 가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다”는 대담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 속에서 영생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일종의 상급인 것 같으면서도, 또한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이 땅에서 경험되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 예수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많은 민중들이 믿고 따르듯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메시아인가? 이러한 궁금증과 의혹 속에서 본문의 율법교사는 약간은 부정적인 저의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저는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얘기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식자들의 세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달픈 삶의 현실을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때는 한낮이었고, 예수님은 오랜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깊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 해도 그 한낮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시간에 물을 길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 여인은 의아해 하며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앗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이유는 그들이 이방민족과 혼합된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편견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던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목마른 것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한낮에 물을 길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안에 있는 갈급함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고, 이제 그분의 관심은 물을 얻는 것에서 물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생에 관한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을 표준새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비로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너희는 와서 보라.” 이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그들과의 접촉을 원치 않았고, 그러면서도 생존을 위해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의 암울했던 삶에 찾아온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리기 시작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1-12)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영생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새롭고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에,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며, 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은 세상 속으로 더욱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생명이 한 구도자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있는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속의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영생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찾아왔던 한 율법교사가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을 도전 받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생에 관한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온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했고,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6장 24-25절을 참고할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즉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 생명, 그리고 의로움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교사는 이 말씀에 기반하여 영생이란 율법을 잘 지킨 결과 혹은 보상이라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그분이 기뻐하거나 흐뭇해 하셨다는 정황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소 딱딱한 어조로 한 마디 덧붙이실 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짧은 한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생에 관한 너의 질문은 네 안에 아직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교사와 똑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영생에 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 중 뒤의 여섯 계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청년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그것은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사실이라는 것과, 따라서 영생에 관한 그의 질문이 진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아채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귀중한 한 말씀을 더 해 주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막 10:21).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소극적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온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적극적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청년이 정말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그에게 임할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퍼주고 나눠주어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법칙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 청년은 영생을 사모했지만 그가 가진 재물보다 더 사모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 13:44).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4,18).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이웃을 ‘찾는’ 삶이 아닌 참 이웃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율법교사는 또 다른 질문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복음서 기자 누가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께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만 보면, 그 율법교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동포’ 즉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3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범위는 이스라엘 동포에 한정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이 율법교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 차례로 정복당한 주후 1세기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더욱이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이 외래인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방 세력에 대해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경우, 다른 율법 조항들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이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계명만큼은 은근슬쩍 무시해 버리고, 이웃 사랑의 범위를 동포, 그것도 죄인들을 제외한 건전한 동포들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던 이유이며, 또한 역으로 예수님 역시 그들을 향해 ‘회 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혹독히 비판하신 배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는 대신, 그 시대에 폭넓게 수용되고 있던 구부러진 가치 기준에 의지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웃 사랑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결정짓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이들을 확정짓기 위한 질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즉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업고, 죄를 많이 지어서 강도에게 된 통 당해도 싼 사람인지, 아니면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기에 그 비참한 상황이 너무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그저 ‘어떤 사람’입니다.

반면,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으로 통하는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 다음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해 마지 않았던 사람, 즉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성직자들을 비판하시려는 것이 주목적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을 지나간 세 번째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신분, 지위 혹은 율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실천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참 이웃을 찾는 삶에서 타인을 위한 참 이웃이 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참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저울에 달아보며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은 오늘 우리를 참 이웃의 삶으로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넘어 책임과 나눔으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묘사된 것처럼 실제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강도가 출몰하기에 용이한 좀 무섭고 외진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집이 있는 여리고 사이를 왕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성직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 드린 설명들을 참고하자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합니다. 그 무섭고 외진 길에서 강도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저 같으면, 그 피해자를 어서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다 그 두 성직자가 들 수 있을 변명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더럽혀졌을 경우 그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결코 성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강도 만난 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시체로 오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를 피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이유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직을 수행하러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 안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지 모른다는 생각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즉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성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설득력이 약한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유기된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성직자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며, 또한 그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은 고귀한 신분이므로 그 시체와 같이 부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가, 비록 설득력은 약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은 그의 속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며, 가까이 다가가 그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인간인데, 그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무섭고 외진 길을 가다 멈추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에 들어갈 때,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눈초리를 감수하기 위해 그는 또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 그 피해자를 돌봐주라고 그가 여관 주인에게 내밀었던 데나리온 둘은 당시 돈으로 약 보름치의 여관비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적잖은 돈을 선금으로 내밀 때에도 그에게는 다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이 세상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죽어가던 저의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제 연약함의 짐을 함께 져 주셨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그분 역시 두려우셨지만,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었고,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통해 예수의 생명은 지금 제 속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또다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책임과 나눔의 행동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Pay it back이 아니라 Pay it forward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피동적인 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책임과 나눔의 삶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어떤 높은 도덕적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꼭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 있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넘어 책임과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